

 국토교통부		<b>보 도 자 료</b>	
		배포일시	2020. 4. 1(목) / 총 4매(본문4)
담당 부서	도시정책과	담 당 자	·과장 이상주, 사무관 최희정, 주무관 정지원 ·☎ (044) 201-3706, 4972, 4843
보 도 일 시		2020년 4월 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1일(수) 15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한국형 스마트시티, 해외에서 러브콜 쏟아져

- 「K-City Network」 국제공모 결과 **23개국에서 80건** 제출
- 올해 최초 공모... **해외정부만 사업제안 가능**하여 신뢰성 제고
- 4월 20일에 **10건 내외 선정**...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기회 활용

- ◇ 국토부, 해외에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 
올해 최초로 「K-City Network」 글로벌 협력프로그램 도입
- 신청주체를 해외 정부·공공기관으로 한정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 
신뢰성 크게 제고
- 사업 선정시, ❶ (도시개발형)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또는  
❷ (단일 솔루션형) 교통, 전자정부, 환경 등 솔루션 F/S 지원 예정
- ◇ 1월 31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제공모 결과, 당초 기대를 크게  
상회하여 **23개국에서 총 80건 신청**
- (지역별) 전남방 39건(10개국), 전북방 27건(6개국), 충남미 9건(4개국) 등
- (유형별) 도시개발 통합솔루션형 31건, 단일 솔루션형 46건 등
- ◇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거쳐,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 
**4월 20일에 10건 내외 최종 선정 예정**

## ① 공모사업 개요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해 올해 최초로 출범한 「K-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」(이하 「K-City Network」)에 대해 1월 31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제 공모를 진행한 결과,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하여 23개국에서 총 80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.
- 「K-City Network」 협력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, 사업 유형에 따라 ①도시개발형의 경우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며, ②단일 솔루션형의 경우 교통·환경·전자정부 등 분야별로 스마트 솔루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게 된다.
  - 또한 「K-City Network」는 공모사업 신청주체를 해외정부,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여, G2G 차원의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신뢰도 향상을 통해 본 사업 연계 가능성을 높였다.
- 「K-City Network」는 지난 11월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개최한 ‘한-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(19.11.25, 부산)’에서 김현미 장관이 최초 제안하여 아세안 장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프로그램으로,
  - 국토부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뿐 아니라 신북방 지역, 중·남미 지역 등과의 협력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공모 신청국가를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모든 국가로 확대하였다.

## ② 접수결과

- 이번 공모접수 결과를 우선 지역별·국가별로 살펴보면,
  - 신남방 지역은 10개국에서 39건(48.75%), 신북방 지역은 6개국에서 27건(33.75%), 중남미지역은 4개국에서 9건(11.25%) 등을 제출하였고,
  - 특히 터키에서 16건, 말레이시아 9건, 베트남·인도네시아·라오스는 각 5건씩을 제출하면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.



□ 공모접수 결과를 **유형별**로 살펴보면,

○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17개국에서 31건(38.75%)을 제출하였으며,

- 국가나 도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도시 개발 로드맵 수립(라오스)에서부터 신도시 개발(인도네시아, 미얀마, 필리핀 등), 역세권 개발(호주, 인도 등), 공항 이전부지 개발(페루 등), 산업단지 개발(터키, 러시아 등)까지 다양한 요청이 있었다.

○ 스마트 단일 솔루션형은 19개국에서 46건(57.5%)를 제출하였으며,

- ITS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 분야(15건), 데이터통합 및 운영플랫폼 구축 등 전자정부 분야(14건), 치안·방재 분야(6건), 스마트 물관리 분야(4건),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 등 환경 분야(4건)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요청이 있었다.



### ③ 향후계획

- 국토부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,
  - 해외공관 및 관련 부처로부터 2주간에 걸쳐 MOU 등 정부 간 협력 현황, 사업 유망성, 한국기업과 협력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, 이후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 20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,
  - 선정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([www.molit.go.kr](http://www.molit.go.kr)), 스마트시티 종합포털([www.smartcity.go.kr](http://www.smartcity.go.kr)), 공모사업 위탁기관인 KIND 홈페이지([www.kindkorea.or.kr](http://www.kindkorea.or.kr)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해외 정부와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통해 선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.
- 국토부 이상주 도시정책과장은 “K-City Network는 기존 사업과 달리 정부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공모를 거쳐 사업 신뢰성을 크게 높였고, 앞으로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는 글로벌 인프라벤처(Global\_Infra\_Venture\_Fund: GIVF)펀드, 글로벌 플랜트·인프라·스마트 시티(Plant\_Infrastructure\_Smart city: PIS) 펀드 등으로 본 투자와 직접 연계할 계획이다.”라고 설명하면서,
  - “이번 K-City Network 공모 결과에서 보듯이 해외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번에 제출된 사업을 국토부 내 철도, 도로, 공항 등 유관부서와는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국제협력단(KOICA), 수출입은행(KEXIM) 등과도 공유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최희정 사무관(☎044-201-497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